

투데이 칼럼

북한 경제 전반 붕괴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4명이 독산을 타고 동해로 탈북했다. 이들은 북한 경비정에 2시간 30분 동안 추격을 당했다. 서른 시간이 넘는 항해와 표류 끝에 속초에 도착했다. 탈북민은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당국의 강압적 통제가 탈북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북한의 바다를 봤다. 결핍하던 단련대(교도소)에 끌려가는 것도 보았다.



정복규
논설위원

2020년 1월, 북한은 코로나19 비상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걸어 잠갔다. 중국과의 공식 무역은 물론 밀무역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불거는 실업으로 치솟았다. 원자재까지 100% 국내산이라고 선전하던 생활품 생산마저 중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사실 다 속고 살아야 했다. 북한 당국은 모든 게 다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국산화를 강조하며 국산품 증산에 주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요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했고 자체 생산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북한은 중국에서 원부자재가 들어와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2022년 5월,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북한 당국은 민간요법에 의지

하기 급급했다. 해열제가 없어 버드나무 잎에 황경피 나무를 섞어 먹으면 열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민간요법은 아무리 먹어도 앓을 만큼 다 앓게 됐다.

국경 봉쇄는 장장 3년 7개월간 이어졌다. 경제 전반이 붕괴됐고 주민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다. 장마당에 여기저기에는 은퐁꽃제비(떠돌이 아이)들이었다. 음식물을 앓아서 먹지를 못했다. 꽃제비들이 덮치기 때문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주민들은 한겨울에도 산에 올라 약초를 캐러 다녔다. 5살, 6살짜리 어린이들도 돈을 벌겠다고 산출기를 뒀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주민 희생을 기반으로 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희생은 군인들의 몫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친적으로 선전하는 은실농장 역시 군인

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졌다는 증언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군인들이 연포 은실농장까지 가서 건설했다.

하루 2시간밖에 못 잤다. 그래서 브로크(시멘트 벽돌)을 지고 올라가다 졸면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난해 8월, 북한이 국경 일부를 열고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면서 주민들의 형편도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터전인 장마당을 강력하게 단속, 통제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 상인들의 곡식 판매가 금지됐고 국가가 식량 공급권을 독점했는데 이후 쌀값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장기화된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모든 재원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해적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강력한 사회 통제법을 제정해 단속과 처벌도 강화했다. 메모리(한류 영상) 조금 봤다가 걸리면 처벌받는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다음 세대로의 권력 세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시대는 더 충성심이 없다. 그것을 김정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김주애의 잦은 등장은 주민들의 피로감만 키우고,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지게 한다는 평가다.

이 역시 북한 주민들의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통제된 생활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댈 곳은 은밀히 들어오는 외부 문화뿐이다.

한류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인기 있는 노래와 가수도 한국의 유행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불법으로 구입한 중국산 TV를 통해 한국 방송을 시청하기도 한다.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질수록 탈북 열망도 커지기 마련이지만 빠져나올 구멍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사설

한국인의 행복지수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이란 본인이 느끼는 즐거움의 합이다. 대한민국은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143개 나라 가운데 52위다.

한 국가의 행복지수는 국가의 경제적인 등수와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인 규모나 수준에 비해 행복감이 매우 낮다. <자유도>란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즉 선택을 하는 것이다.

행복감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 이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누구나 본인의 취향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평가를 하고, 이걸 틀렸으니 저렇게 하라 등 지적을 계속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요즘 갈수록 한국 사회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로 일상이 돌아간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부닥치는 일상의 삶에서 반사되는 돈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때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뭐가 나를 신고할 것 같고, 어떤 위협이나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회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 과도한 경쟁은 청년들의 고뇌를 불러왔다. 한정된 자리를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쫓아갈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생겨난다.

행복감과 가장 직결된 것은 사람과의 사소한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사회를 단박에 만들 수는 없다. 지도자들부터 앞장서야 한다. 공정과 상식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언론의 사도광산

일본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었다. 최근 어느 일본 언론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던 한국의 태도가 변할 조짐이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한국이 절대 반대는 아니다'라고 보도한 것이다.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일제 강점기 1,5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다. 조선인들은 구리나 철, 아연 같은 일본의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 노역을 했던 가슴 아픈 곳이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서 일본 에도 시대부터 금을 캐온 곳이라며 총리가 직접 나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다.

2022년 일본 총리는 "사도광산은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인 강제 노역 피해 현장"이라며 "매우 개탄스러우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최근 보수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후, 한국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 "주일 한국 대사관 사가 지난 4월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보통 탄압정치로 결정되는 만큼 일본이 심의를 앞두고 사전 로비와 여론전을 시작한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록 여부는 오는 7월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스 USA 왕관 물려받은 사반나 간키에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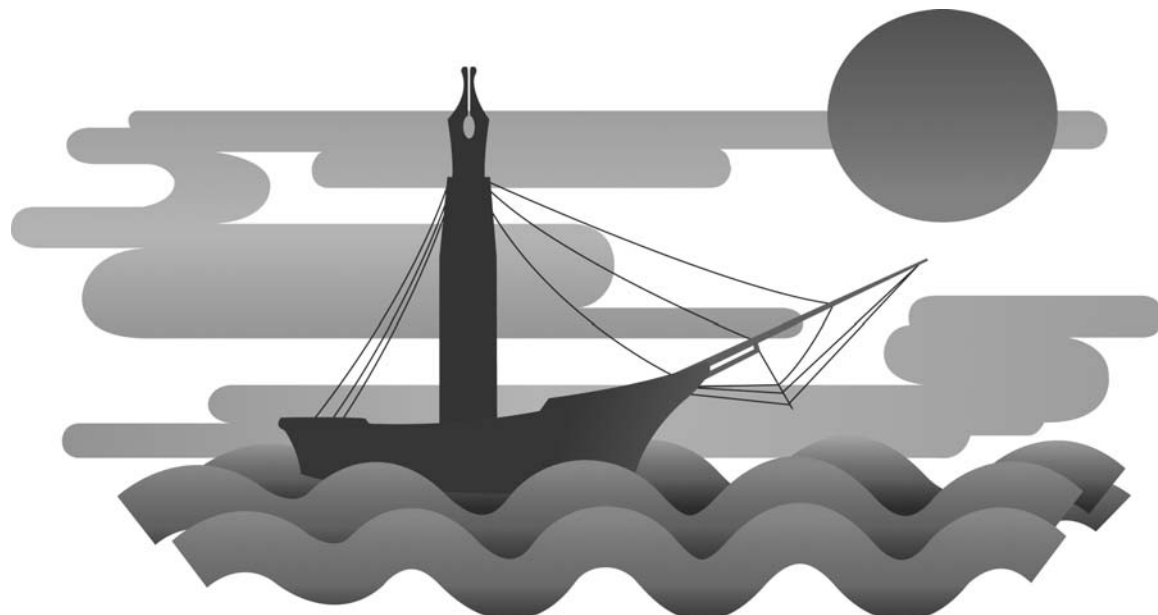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미스 USA 2023 준우승자였던 사반나 간키에비치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미스 USA 2023 왕관을 쓴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와이 출신인 간키에비치는 미스 USA 우승자인 노엘리아 보이트가 임신 건강을 이유로 지난 8일 시퇴하면서 왕관을 물려받았다. 보이트는 미스 USA 조직위로부터 괴롭힘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왕관을 반납했다.

구호 외치는 아프리카계 브라질인 시위대



지난 16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권리 강화와 노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킬롬부스 지역의 경제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